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전주시, 지역 4곳과 협약 법령 개정 앞서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으로 환경보호

전주지역 장례식장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23일 시청 회의실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 의사를 밝힌 장례식장 대표와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장례식장은 △

현대장례식장 △예수병원 장례식장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효자장례식장 등 4곳이다.

이들은 현재 장례식장이 법적으로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환경보전을 위해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실천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시는 일회용 삼조물품을 지급하는 유관기관 등에 일회용품 제공을 줄이도록 협조를 한편,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와 손을 맞잡고 다화용기 세척 자활기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시가 이처럼 장례식장들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실천 협약을

체결한 것은 환경부 조사에서 장례식장 1곳당 연간 72만개의 밥·국·국·국과 144만개의 접시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장례식장에서만 연간 2억 1600만개의 일회용품 접시가 배출되고 있다. 국·국에도 현재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지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시는 향후에도 일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나머지 장례식장들도 자발적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에 전주지역 17개 모든 사설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그간 공공기관 민

원실 86개소에 다화용컵 세척기를 설치하고, 전주지역 대형마트와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일회용품 다량 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1450여 건의 현장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하는 등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는데 힘써왔다.

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 매장 면적 및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선5기 시 복지환경국장은 "법령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마음이다. 관내 장례식장 및 시민단체와 함께 일회용품 줄이기에 솔선하며 시민 인식 개선에 힘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주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수공예 동네 축제 '팡파르'

전주시, 26일 '동네손 프로젝트' 개최

수제작 부흥을 기반으로 '손의 도시(핸드메이드시티)' 만들기엔 나선 전주시가 전주의 우수한 공예문화를 알리기 위한 수공예 동네축제를 연다.

전주시는 오는 26일 송천동 예코스티 세병공원과 혁신동 혁신도시 기지재수변공원에서 지역 수공예 작가들을 알리고 친근한 수공예 장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축제인 '동네손 프로젝트'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동네손 프로젝트에서는 송천동과 혁신동에 거주하는 수제작 단체들이 주축이 돼 지속가능한 자생적 수제작 문화 실현을 위해 손으로 만든 공예작품을 전시·판매하고, 주민들을 위한 체험행사도 진행한다.

또, 다양한 문화공연도 마련돼 불

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성한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손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간 △초등학교를 위한 1인 1전통 공예프로그램 △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체험교실 △요양병원 어르신 손뜨개교실 등 다양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시는 향후에도 생활문화를 바탕으로 한국적 손품의 가치에 대한 관심과 공감,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으로 준비된 이번 동네손 프로젝트는 전주의 새로운 수공예 동네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동네손 프로젝트가 내실 있고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덕진구, 찾아가는 복지이동 상담실 운영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중엽)는 23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별관에서 찾아가는 복지이동 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주관으로 2019 좋은 날 좋은 일 여성 취업박람회 개최를 따라 덕진구 생활복지과는 복지담당 공무원으로 전문상담사를 꾸려 박람회에 참석할 실직 및 구직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복지상담을 실시하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연계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각종 요금감면제도, 주거복지사업 및 취약계층 특발감면 사업 등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홍보하여 행사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덕진구 찾아가는 복지이동 상담실은 평소 복지욕구가 있어도 관공서 내방을 어려워하는 주민들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관내 복지관,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직접 찾아가 복지대상자를 만나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진교훈 생활복지과장은 "시민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이웃이 없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가 23일 효자동·산정동 일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현장점검에 나섰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현장 점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백영규 의원)가 23일 효자동·산정동 일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현장점검에 나섰다.

위원회는 이날 유해 매장 추정지인 효자동 황방산 및 산정동 소리개재 일대 유해 발굴 및 시굴 현장 확인 및 사업 설명을 들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은 지난 8월부터 유해 발굴 용역이 착수되어 희생자 유족간담회, 유해 발굴 개도제, 유해매장 추정지 시굴 및 1차보고회 등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수습유해 감식작업을 거쳐 '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 후 최종 보고회를 끝으로 11월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민간희생자

파악 및 유가족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백 위원장은 "이번 유해발굴이 전주내 학살 희생자와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되길 바란다"며 "전주시의회에서는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어르신, 대학 캠퍼스를 누비다'

전주시, 성인문해교육 희망학교 선정기관 어르신 대상 현장 체험

전주시가 대학교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늦깎이 배움에 나선 성인문해학습자들에게 학습동기를 심어줬다.

시는 23일 전주교육대학교에서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성인문해교육 전주희망학교'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대학교를 방문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등학교 방문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이번 현장체험학습은 전주교육대학교의 협조를 받아 180여명의 문해학습자들이 대학교 캠퍼스를



누비고 강의를 체험해보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성인문해교육에 참여하는 어르신 학습자들은 이날 도서관, 체육관, 동아리실 등 대학교 캠퍼스를 곳곳을 누비며 대학생들의 실력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일일 대학생이 돼 현재 대학교수의 맞춤형 대학 강의를 맞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슬기로운 讀(독)깨비', 독서대회 봉사활동

전주시 독서학습동아리인 '슬기로운 讀(독)깨비' (회장 주정화)는 지난 19일 개최된 '제10회 전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마음 독서대회'에서 지역아동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건지산 권백순 일대에서 펼쳐진 이번 한마음 독서대회는 자연의 소중함을 책을 통해 간접경험하고, '슬 체험'이라는 워밍업 프로그램을 통해 온몸으로 자연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 자리에서 '슬기로운 讀(독)깨비' 회원들은 아이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이 숲에

서 쉽고 책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책을 행사장소 곳곳에 비치했다.

또한 회원들은 각 연령대별로 원하는 책을 추천해주고, 행사장 곳곳을 누비며 지역 아동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알리기 위해 힘썼다.

'슬기로운 讀(독)깨비' 관계자는 "그간 꾸준히 실시해온 정기적인 독서토론편모임과 전주시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벤치마킹은 물론, 향후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